

기간경과에 따른 재무설계상담의 효과 분석

오종윤*

최현자**

이지영***

I. 서론

인간은 누구나 재무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리하고자 한다. 하지만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생애기간 동안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뿐만 아니라 자원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자산관리나 재무설계가 더욱 복잡해져서 개인이나 가계가 스스로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교육비, 주택구입 등 필요한 자원의 양은 크게 증가한 반면에 정년의 단축이나 조기퇴직 등으로 가계가 획득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수명은 1970년대 약 60세에서 2010년에는 약 80세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평균 퇴직연령은 54세에 불과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퇴직 이후에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약 26년 정도를 더 살아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며, 이는 곧 결국 직장에 다니거나 소득이 있는 동안에 자산을 유지하거나 증식을 시켜서 소득이 없는 동안에 사용해야 하는 생애기간에 따른 자산의 배분에 대한 문제로 직결된다. 생애기간에 따른 자산배분을 하기 위해서는 화폐의 시간가치, 물가상승률, 투자수익률, 생명표 등 경제 및 사회환경에 대한 다양한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산정하여야하나 개인이나 가계가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지금과 같은 낮은 금리와 높은 물가 수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식, 채권, 부동산 그리고 파생상품 등에 대한 다양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금융공학 등이 발달하여 금융소비자인 개인이나 가계가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금융상품을 이해하고 가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렇듯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환경 속에서 스스로 금융상품 구매의사결정을 내리고 재무복지를 향상시킨다는 것은 금융소비자에게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다. 갈수록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금융상품과 관련된 의사선택이 요구될 때 전문가의 조언에 의해 바람직한 금융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금융주치의 개념의 금융멘토 및 금융자문서비스 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조혜진 외, 2013). 정부나 학계에서는 소비자 재무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재무설계, 재무상담, 재무교육 등 다양한 재무관련

* 한국재무설계 소장(jyoh@koreafp.co.kr)

**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수연구원

서비스 영역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재무교육이 재무행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제로 하는 연구들(안창희·정순희, 2006; Hathaway & Khatiwada, 2008)이 이루어진 바 있다.

특히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재무교육과 관련되어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들은 공무원, 법률 회사 직원 등과 같이 다양한 직종의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종업원재무교육이 재무행동 및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냈다(Joo, 2000; Joo & Grable, 2005; Edmiston & Gillett-Fisher, 2006; Dolvin & Templeton, 2006; 주소현, 2008).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재무교육 및 재무상담과 같은 재무관련 서비스들은 가계의 재무적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종업원들의 고용주에 대한 충성도와 직장만족도 및 생산성을 향상시킨다고 알려져 있다(Williams et al., 1996; Garman et al., 1996; Joo, 1998; Hira & Loibl, 2005; Kim, 1999; Kim, 2000). 재무적 문제를 갖고 있는 근로자에게 최대한의 업무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재무적 걱정거리는 예상하기 어려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Adler and Leff, 1976, Williams et al., 1996에서 재인용)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개별 가계뿐만 아니라 고용주의 입장에서도 활용도가 높은 시사점이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듯 최근 국내에서도 기업체에서 재무설계회사와 계약을 맺고 재무교육 및 재무설계를 실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종업원을 대상으로 일대일 맞춤 재무설계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재무설계를 개별 개인 및 가계 차원에서 재무설계를 실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재무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금융환경이 복잡 다양해지고 기대여명이 증가함에 따라 개별 개인 및 가계 차원에서 종합적 재무설계를 시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계의 재무적복지수준을 향상시켜주기 위한 대안으로 재무전문가를 통한 재무설계상담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이러한 맥락에서 윤정혜 외(2001)는 재무상담이 전문재무상담사에 의해 재무상담전문조직이나 기업의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무설계전문가의 기능에 주목하여 전문가를 통해 진행되는 재무설계상담서비스가 가계의 재무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재무설계상담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동일한 조사대상자들의 재무설계상담 전후를 비교하는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동일대상자들의 대상으로 재무설계상담 전후의 변화를 측정함에 있어 시간의 경과를 고려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II. 선행연구 고찰

2.1 재무설계와 재무설계상담의 유용성에 관한 선행연구

재무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재무설계상담의 유용성을 측정하는 연구를 고찰함에 있어서 재무설계와 재무설계상담은 구분되어야 한다. 재무설계 및 재무설계상담의 유용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전문가의 개입여부를 구분하여야 하여 단기적 재무목표와 부채와 같은 특정한 재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가 개입하는 경우를 제외하여야 전문가가 개입된 재무설계상담의 효과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연구들을 통해 재무설계 및 재무상담과 같은 재무관련 서비스가 개인 및 가계의 재무복지를 향상시킨다는 점이 밝혀졌다. 특히 직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재무교육과 행동과 관련된 연구(Joo, 2000; Joo & Grable, 2005; Edmiston & Gillett-Fisher, 2006; Dolvin & Templeton, 2006; 주소현, 2008)들에서는 공무원, 법률회사 직원 등과 같이 다양한 직종의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종업원재무교육이 재무행동 및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냈다. 미국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기업의 관점에서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재무교육 및 재무설계를 기업의 관점으로 연결한 연구들이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Williams et al., (1996), Garman et al., (1996), Joo(1998), Hira & Loibl(2005), Kim, (1999), Kim, (2000)가 실시한 종업원들의 고용주에 대한 충성도와 직장만족도 및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연구결과들은 직장에서 제공하는 재무교육서비스의 효과는 개별 가계뿐만 아니라 고용주의 입장에서도 유용한 함의를 도출하고 있다.

재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무상담이 제공된 경우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신용상담이 경제적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연구결과(Kim et al., 2003)와 강제적인 재무상담이 주택담보대출의 선택에 있어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Collins, 2007) 등과 같이 특정 영역의 재무상담의 효과에 관한 연구들 또한 전문가를 통한 재무설계상담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현자 외(2008)의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은퇴생활에 미치는 재무설계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 전 단계에 걸친 재무설계를 하는 경우에만 유의미한 변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상태 평가, 재무목표 설정, 행동계획의 수립과 실행, 정기적 재정상태 점검이라는 4 단계에 해당하는 재무관리를 모두 한다고 하는 경우만 해당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 연구는 전문가를 통한 재무설계서비스를 제공받는지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 개인의 재무관리행동 여부를 이용하여 측정된 것이다. 이처럼 대부분 재무설계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조사대상자가 직접 실시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정의한 재무설계상담의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재무설계상담의 실질적인 효과나 유용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였으나 재무설계상담 이용 대상자들이 이용하지 않은 대상자들에 비해 객관적 및 주관적 재무복지 수준이 양호하다는 연구 결과가 오종윤·최현자(2010), 오종윤(2011), 오종윤·최현자(2012)에 의해 입증되었다. 오종윤, 최현자(2010)는 ROTC 입관 장교 135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 결과 재무설계상담의 이용자들의 저축액은 많은 반면, 변동지출액은 적으며, 주식형 펀드의 가입비율이 높았으며, 저축액이나 자산포트폴리오의 주식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삶에 대한 만족도 역시 재무설계상담 이용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종윤(2011)은 재무설계사를 통하여 재무설계상담을 받은 384명을 대상으로 재무설계상담이 가계재무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재무설계상담이 객관적 재무복지 지표(가계수지지표, 비상자금지표,

위험대비지표, 부채부담지표, 저축성향지표, 투자성향지표, 유동성지표)와 주관적 재무복지 지표(재정상태에 대한 만족, 소비지출패턴에 대한 만족, 투자패턴에 대한 만족, 종합 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종윤·최현자(2012)는 재무설계상담 여부에 따라 가계재무상태평가지표의 충족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가계수지지표, 비상자금지표, 저축성향지표, 투자성향지표, 유동성지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재무설계상담이 주관적 재무복지 수준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재무설계상담 여부에 따른 비교를 실시한 것으로 재무설계상담을 실시한 대상의 전후의 재무적 복지수준을 직접적으로 비교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2.2 재무복지의 측정에 관한 선행연구

가계의 경제적 복지수준은 경제복지, 재무복지, 재정복지라는 용어로 혼용되며 관련 연구들이 배출되어 왔다. 이러한 복지수준을 측정함에 있어서 주관적 및 심리적 측면과 객관적 측면으로 구분될 수 있어 두 개로 구분하여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2.2.1 주관적 재무복지의 측정

주관적 재무복지를 측정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손상희(2000)은 주관적 재정복지, 재정만족도, 재정안정도, 경제복지감, 경제생활만족도, 재정상태에 대한 기대감, 주관적 경제수준 평가, 자원적정도 등의 용어가 혼용되면서 개념은 동일시 되면서도 척도를 구성하는 하위영역에 있어서는 연구자마다 각기 다른 척도를 사용하고 있어 연구결과와 성과를 집약하여 실천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주관적 재무복지는 일반적으로 재무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재무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조동필(2007)에 따르면 경제생활을 하는데 느끼는 만족도, 객관적 재정상태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재무관리에 대한 만족도 등으로 연구되어져 왔다. 조동필(2007)의 연구의 경우 주관적 재무만족도를 가계소득, 생활비지, 저축, 비상준비금, 부채, 노후대비의 6가지 항목과 전반적 경제적 여건에 대한 질문으로 총 7개 문항으로 구성된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2.2.2 객관적 재무복지의 측정

객관적 재무복지를 측정하기 위해 가장 보편적으로 수행된 연구는 소득, 지출, 자산구조를 중심으로 재정상태를 측정한 연구들을 들 수 있다(손상희, 2000). 객관적 재무복지는 단순히 총자산수준 등으로 표현하는 방식과, 자산의 활용이나 구조에 대한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재무비율 방식으로 대별된다.

재무비율은 종합적 자산관리를 위한 신뢰성 있는 척도이며, 시간의 변화에 따른 재정적 능력평가를 쉽게 하기 위해 구성된 객관적 척도로서 개별가계의 재정상태의 특성을 파악하

기 위한 효과적이고 유용한 도구임이 여러 연구들을 통해 입증되었다(Prather, 1990; Devaney, 1993; 양정선, 1997; 이희숙 외, 2002). 국내에서는 최현자 외(2003)의 연구에서 기존의 가계재무상태 평가지표에 관한 고찰과 평가를 바탕으로 한국가계에 적합한 재무비율을 제안된 것을 토대로 실질적인 우리나라 가계에 적용된 연구들(김민정·최현자, 2007; 양세장·정지영, 2009)이 주를 이루고 있다.

주관적 재무복지와 객관적 재무복지를 동시에 분석하는 연구들(조동필 외, 2007; 최현자 외, 2008)의 경우 다양한 관점에서 가계의 재무복지를 측정할 수 있으며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의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다 의미있는 결과 도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재무설계상담이 객관적 재무복지와 주관적 재무복지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III. 연구방법

3.1 자료 수집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된 과정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된 과정은 다음과 같다. 국내의 K재무설계전문회사는 회사에서 소득에 따라 나눈 상담료 책정을 기준으로 유료재무설계상담 서비스를 진행하였다. 재무설계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였거나 또는 K재무설계전문회사와 재무설계 상담서비스제휴를 맺은 기업에서 비용을 부담하였다. 본 연구는 2012년 4월 16일에서 2013년 10월 15일까지 총 44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동일한 대상자에게 총 3회에 걸쳐서 진행하였는데 1회는 본격적인 재무상담을 진행하기 전에 한 번 실시하였고, 2회는 1회에서 조사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 및 분석한 후 대안에 대한 실행이나 종결을 한 뒤에 한 번 더 실시하였다. 3회는 2회 때 대안에 대한 실행을 종결 뒤 일정시간이 흐른 뒤에 자산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고객과 모니터링 상담을 진행하며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들에게 수집한 자료는 재무설계상담에 필수적인 가족사항, 재무목표, 금융 및 부동산 등 가계자산자료, 가계의 수입 및 지출 등의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하였으며, 재무설계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재무설계상담 및 교육은 재무설계전문회사에 소속된 재무설계사들 6명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이들은 본인이 실시한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총 3회에 걸쳐 수집하였다.

분석대상의 65.9%인 29명은 기혼이었으며, 평균연령은 30.4세로 20대가 52.3%를 차지하여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기혼자 중 6명(40%)이 맞벌이를 하고 있었으며, 학력수준은 조사대상자 대졸 이상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대부분은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 중이었다. 가구원 수는 독신 가구가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평균가구원 수는 2.2

명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와 해당 가게의 일반적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본 연구는 재무설계상담 이전과 이후 각각 두 번씩 측정된 정보들을 토대로 비교를 진행하였으며, 전 측정과 후 측정의 기간은 대상자에 따라 5~20개월로 조사대상자의 절반 정도가 20개월이며, 평균 경과기간은 13.8개월이었다. 본격적인 재무상담을 진행하기 전에 한 번 실시한 소득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의 합은 평균 304.4만 원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 (명)	%	변수	구분	빈도 (명)	%
성별	남성	16	36.4	학력	전문대졸	7	15.9
	여성	28	63.3		대졸	37	84.1
결혼	미혼	29	65.9	가구원 수	1명	21	47.7
	기혼	15	34.1		2명	4	9.1
연령	20대	23	52.3		3명 이상	19	43.2
	30대	17	38.6		평균(S.D.)	2.2명(1.3)	
	40대	4	9.1		자가	9	20.5
	평균(S.D.)	30.4세(5.3)		주거상황	전월세	10	22.7
거주지	서울	22	50.0		기타	25	56.8
	수도권	15	34.1	시간경과	5개월	1	2.3
	광역시	7	15.9		7개월	12	27.3
소득 수준	100~200만원	19	43.2		10개월	10	22.7
	200~300만원	10	22.7		20개월	21	47.7
	300~400만원	5	11.4		평균(S.D.)	13.8개월(6.1)	
	400만원 이상	10	22.7				
	평균(S.D.)	304.4만원(224.2)					

3.2 변수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재무설계상담이라는 개념은 중장기적 목표를 설정하여 전문재무설계사와의 관계정립과 개입이 포함된 재무설계를 시행하여 재무적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개별 개인 및 가게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재무설계를 한다는 것과는 달리 재무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또한 단일한 재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전문가를 통한 재무설계와도 차이가 있다. 재무설계사는 소비자의 재무목표를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소비자의 재무상태를 정리, 분석, 평가해주고, 실행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재무목표를 달성해나가는 데 있어서 정기적 및 비정기적으로 조언을 제공하는 등 소비자의 재무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재무설계전문가이다. 재무설계상담이라는 용어는 오종운(2011), 오종운·최현자(2012), 김병태(2013)의 연구 등에서 사용된 바 있다. 종업원 재무설계상담은 고용주가 비용을 부담하여 재무설계상담을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재무설계상담의 효과는 재무복지가 향상된 정도로 측정하였으며, 주관적 재무복지와 객관적 재무복지로 구분하였다. 주관적 재무복지는 재무관리태도 · 재무관리능력 · 재무만족도를,

객관적 재무복지는 단순재무지표와 재무비율지표를 활용하였다

3.3 연구문제와 분석방법

3.3.1 연구문제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재무설계상담이 가계의 주관적 및 객관적 재무복지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재무설계상담의 유용성을 규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재무설계상담이 주관적 재무복지를 향상시키는가?

연구문제1-1: 재무설계상담이 재무관리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1-2: 재무설계상담이 재무관리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1-3: 재무설계상담이 재무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2: 재무설계상담이 객관적 재무복지를 향상시키는가?

연구문제2-1: 재무설계상담이 단순재무지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2-2: 재무설계상담이 재무비율지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3.3.2 분석방법

재무설계상담이 가계의 재무복지를 향상시키는가를 규명하기 위해 주관적 측면과 객관적 측면으로 구별하여 측정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사용하였다. 주관적 재무복지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재무관리태도, 재무관리능력, 재무만족도를 전후 비교하기에 앞서 Cronbach's α 를 활용하여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이 재무설계상담 전후의 재무적복지수준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두 집단의 평균의 차이를 검증하는 T검정을 실시하였다. 단일표본 T검정의 특수한 형태 중 하나인 대응표본 T검정(Paired Sample T-test)을 적용하여 한 집단을 대상으로 어떠한 개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개입 전과 후의 값을 비교하였으며, 이러한 분석은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객관적 재무복지수준도 마찬가지로 단순재무지표와 재무비율지표를 조사대상자들이 재무설계상담을 받기 전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alpha=.05$ 로 설정하였다.

IV. 실증분석 결과

4.1 재무설계상담과 주관적 재무복지

주관적 재무복지를 측정하기 위해 재무관리태도와 재무관리능력, 재무만족도에 대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5), 그렇다(4), 보통이다(3), 그렇지 않다(2), 매우 그렇지 않다(1)의 5점 리커트척도로 측정되었다. 재무관리태도란 금융소비자가 목표설정, 소득, 소비 및 지출, 저축 및 투자, 위험대비, 대출, 은퇴 등 재무관리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재무관리능력이란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재무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지, 소득수준과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지,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재정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지, 재무목표설정을 하고 재무목표 설정을 위하여 자산관리전략을 시행할 수 있는지, 정해진 소득 범위 내에서 생애설계를 할 수 있는지 등 전반적인 재무관리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의미한다. 재무만족도란 금융소비자의 현재와 미래의 재무상황에 대한 주관적 느낌을 말한다.

4.1.1 재무설계상담 전후 재무관리태도의 변화

재무설계상담이 재무관리태도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동일인을 대상으로 재무설계상담 전후의 재무관리태도의 항목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재무관리태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재무설계상담 전후 재무관리태도 분석

문항	평균값 (표준편차)		t
	before	after	
재무관리를 잘 하기 위하여 재무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4.48(0.70)	4.84(0.37)	-3.358**
돈과 자산은 나와 가족이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하여 중요한 것이다	4.36(0.72)	4.64(0.57)	-2.213*
안정된 재무관리를 위하여 소득을 높이고 수입원을 다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4.20(0.73)	4.57(0.59)	-2.879**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꾸준히 저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4.46(0.63)	4.82(0.45)	-3.358**
미래를 위하여 오늘을 희생하면서 저축하는 것보다 오늘을 더 중요하게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3.27(0.97)	3.75(1.18)	-2.537*
삶에 꼭 필요한 물건(주택, 교육비, 자동차, 가전제품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는 것은 괜찮다*	3.48(1.02)	3.61(1.04)	-.667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어도 높은 수익을 위하여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3.18(1.08)	3.59(1.11)	-2.285*
은퇴이후의 삶을 위해 되도록 빨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4.23(0.80)	4.80(0.41)	-4.316***
내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위험(질병, 사망, 상해)에 대비해 보장성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4.18(0.79)	4.20(0.70)	-.147
평균	3.98(0.37)	4.31(0.27)	-5.382***
Cronbach's α	0.504	0.420	

* 본 문항은 역코딩되어 처리됨.

* p<.05, **p<0.01, ***p<.001

분석 결과 재무설계상담 이전에는 재무관리태도에 대한 문항의 전체 평균값은 3.98로 그림다(4)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투자의향(3.18), 소비성향(3.27), 대출 허용도(3.48)와 관련된 문항이 4점 이하로 나타났다.

재무설계상담은 재무관리태도 항목에서 대출의향과 보장성보험의 필요성 인식 항목을 제외하고는 재무목표 설정의 중요성, 수입원의 다각화, 조기 은퇴준비의 중요성 등과 같이 전반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재무설계상담이 재무관리태도를 변화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은퇴를 조기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태도를 변화시킨 결과는 은퇴대비에 있어 재무설계상담이 태도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

4.1.2 재무설계상담 전후 재무관리능력의 변화

재무설계상담이 재무관리능력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동일인을 대상으로 재무설계상담 전후의 재무관리능력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재무관리능력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재무관리능력은 재무설계상담 이전에는 평균 2.71로 보통(3)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준인 것이며, 재무설계상담 이후의 평균은 3.82로 1.11 증가하여 재무설계상담이 재무관리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개 문항으로 측정된 재무관리능력의 모든 항목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는 재무설계상담이 전반적으로 재무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 재무설계상담 전후 재무관리능력 분석

문항	평균값 (표준편차)		t값
	before	after	
나는 우리 가족의 재무목표(결혼자금, 주택 구입, 교육자금 등)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준비를 할 수 있다	2.98(0.95)	4.16(0.68)	-6.718***
나는 우리집의 자산규모와 형태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증대시킬 수 있다	3.00(1.01)	3.73(0.62)	-4.628***
나는 소득을 높이고 수입원을 다각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2.70(0.93)	3.68(0.77)	-5.840***
나는 나의 소득수준과 욕구를 파악하여 스스로 예산을 세울 수 있다	3.00(0.89)	3.95(0.78)	-5.999***
나는 매월 정해진 지출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다	2.68(1.03)	3.80(0.98)	-6.566***
나는 나의 부채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며 상환스케줄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2.70(1.09)	3.64(0.81)	-5.578***
나는 금융상품들의 투자위험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나에게 적합한 투자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2.70(1.13)	3.82(0.81)	-6.231***
나는 안정적인 은퇴를 위하여 필요한 금액	2.61(1.06)	3.80(0.73)	-6.960***

을 계산하고 그에 맞는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나는 내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위험(사망, 질병, 상해)등에 대비하여 적절한 보장성보험을 선택할 수 있다	2.59(0.84)	3.57(1.00)	-5.194***
나는 내가 납부하고 있는 세금에 대해 알고 있고 그에 대한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다	2.18(0.76)	3.61(0.75)	-9.751***
나는 나의 재무문제를 상담하기 위해 전문가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	2.61(1.04)	4.27(0.66)	-8.396***
평균	2.71(0.65)	3.82(0.50)	-9.757***
Cronbach's α	0.870	0.855	

* p<.05, **p<0.01, ***p<.001

4.1.3 재무설계상담 전후 재무만족도의 변화

재무설계상담이 재무만족도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동일인을 대상으로 재무설계상담 전후의 재무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재무만족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석 결과 연구대상자인 중소기업 종업원들의 재무만족도는 재무설계상담 이전에는 평균 2.7로 보통(3)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 종업원들의 재무관리에 대한 태도는 좋았으나 재무관리능력은 낮은 수준이었으며, 재무만족도는 2.87로 보통(3) 이하로 나타나 재무관리태도의 수준과 차이가 크게 나고 있었다.

재무설계상담 이후 재무만족도의 평균은 2.70에서 3.63으로 0.93증가하여 재무설계상담이 재무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8개 문항으로 측정된 재무만족도의 모든 항목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은퇴대비, 저축/투자방식, 자산규모와 형태에 대한 만족도가 특히 낮게 나타났다. 특히 안정적인 은퇴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저축방식과 금액에 대한 만족도는 재무설계상담 전에는 2.25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재무설계상담 이후에는 3.91로 가장 높은 수치로 향상되어 향상의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는 재무설계상담 이전에도 3.25로 재무 관련 항목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었고 재무설계상담 이후에도 3.84로 은퇴준비에 대한 문항을 제외하고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전반적 삶에 대한 만족도 이외에 재무와 관련된 만족도 문항 모두가 3점(보통) 이하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재무설계상담 이후에는 모든 항목의 평균이 3점 이상으로 향상되었으나 이전에 재무만족도는 그렇지 못하였다.

8개 문항으로 측정된 재무만족도의 모든 항목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는 재무설계상담이 재무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은퇴와 관련된 영역의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키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표 4> 재무설계상담 전후 재무만족도 분석

문항	평균값 (표준편차)		t 값
	before	after	
나는 나의 삶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다	3.25(0.81)	3.84(0.57)	-4.803***
나는 나의 현재 자산규모와 형태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다	2.57(0.87)	3.11(0.92)	-3.622**
나는 소득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소득수준에 만족하고 있다	2.68(0.86)	3.55(0.93)	-5.589***
나는 현재 내가 선택하고 있는 저축/투자방식과 금액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2.45(0.85)	3.77(0.99)	-8.315***
나는 현재 나와 가족의 지출습관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다	2.91(0.98)	3.43(0.87)	-3.012**
나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채의 규모와 종류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다	2.77(0.99)	3.66(1.06)	-4.664***
나는 안정적인 은퇴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저축방식과 금액에 만족하고 있다	2.25(0.94)	3.91(0.94)	-8.759***
나는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장성보험의 보장규모, 보장기간, 월납입보험료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2.75(0.87)	3.73(0.87)	-5.194***
평균	2.70(0.58)	3.63(0.58)	-9.347***
Cronbach's α	0.795	0.802	

* p<.05, ** p<0.01, *** p<.001

4.2 재무설계상담과 객관적 재무복지

4.2.1 재무설계상담과 단순재무지표

재무설계상담이 객관적 재무복지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동일인을 대상으로 재무설계상담 전후의 객관적 재무복지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객관적 재무복지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으로 총자산 수준, 총부채 수준, 순자산 수준, 자산 포트폴리오 수준, 총 가계 소득, 총 지출 수준, 은퇴준비 금액 등 단순재무지표와 가계수지지표 등 가계안전성지표, 투자성향지표 등 가계성장성지표로 대별되는 재무비율지표 등을 통하여 객관적 재무복지 수준을 측정하였다.

단순재무지표로 객관적 재무복지 수준의 변화를 측정한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조사대상자들의 재무설계상담 이전의 저축과 투자액은 76.6만원이었으나 재무설계상담 이후에는 124.3만원으로 현저히 증가하였다. 저축액은 상담 이전에 비하여 상담 후에 47.7만원이 증가하였고, 증가폭은 약 62.2%이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연금저축액의 경우 재무설계상담 이전에는 16.9만원이었으나 24.7만원으로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향상됨이 확인되었다. 보장성보험료는 약 18만원으로 재무설계상담 전후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지출의 변화는 약 28만원 선으로 재무설계상담 전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변동지출은 재무설계상담 이전에는 130.5만원에서 이후에는 105.3만원으로 25.2만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감소가 확인되었다. 특히 변동지출 중에서 미파악지출액은 40.1만원에서 5.9만원으로 34.2만원이나 감소하였는데, 이는 재무설계상담 이전에는 가계가 자신이 어디에 소비하였는지에 대한 특별한 목적이 없이 사용하던 것에 대한 소비통제가 이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변동지출과 미확인지출의 감소로 생활비 항목도 유의미한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자산의 면에서는 총자산, 투자자산, 순자산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증가가 나타났다. 재무설계상담 이전의 총자산은 1억 2,294만원 수준이었으나 재무설계상담 이후에는 1억 3,664만원으로 증가하였다. 자산의 세부항목 중에서는 금융자산, 부동산자산, 기타자산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투자자산 항목은 재무설계상담 이전에는 1,738만원에서 이후 2,322로 584만원 증가하여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이는 현금흐름상에서 미파악지출과 변동지출항목이 감소하고 저축과 투자, 연금저축액 등이 증가하여 생긴 자금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축적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조사대상자들이 재무설계상담 이후 평균 13개월 정도 경과된 것을 감안하면 시간이 더 경과될 경우 더 큰 재무적 복지수준의 향상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재무설계상담이 저축과 투자액, 연금저축액을 증가시키고, 변동지출, 미파악지출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투자자산과 순자산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하였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표 5> 재무설계상담 전후 단순재무지표 분석

(단위 : 만원)

항목		평균(표준편차)		t값
		before	after	
유 량	저축과 투자	76.6(77.2)	124.3(68.7)	-6.381***
	연금저축액	16.9(35.7)	24.7(36.3)	-3.093**
	보장성보험료	18.3(24.6)	18.1(17.3)	0.148
	생활비	199.3(136.4)	139.2(102.5)	4.060***
	(고정지출)	28.6(32.3)	28.0(28.1)	0.340
	(변동지출)	130.5(102.0)	105.3(83.0)	3.435**
	(미파악지출)	40.1(73.3)	5.9(23.4)	3.341**
적 량	총자산	12,294(18,169)	13,664(18,453)	-3.246**
	(금융자산)	755(1,137)	627(1,019)	0.960
	(투자자산)	1,738(2,092)	2,322(2,497)	-2.789**
	(연금자산)	454.8(939.6)	823(1,984)	-1.694
	(부동산자산)	9,267(15,848)	9,415(15,856)	0.670
	(기타자산)	80(457)	477(2,592)	-1.060
	총부채	2,431(5,274)	2,291(5,011)	1.202
	순자산	9,863(14,480)	11,373(15,103)	-3.515**

* p<.05, ** p<0.01, *** p<.001

4.2.2 재무설계상담과 재무비율지표

최현자 등(2003)은 단순재무지표이외에 가계의 안전성과 성장성을 평가하기에는 재무비율

지표를 제안하였다. 재무비율지표는 안전성지표와 성장성지표의 준거기준을 제시하였다. 재무비율지표로 객관적 재무복지 수준의 변화를 측정할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재무설계상담 전후 재무비율지표 분석

항목			평균(표준편차)		t값
			before	after	
안전성 지표	가계수지지표 ^a	월평균생활비/월평균가계소득	0.71(0.31)	0.71(0.31)	-0.595
	비상자금지표1 ^b	금융자산/월평균생활비	14.5(71.1)	4.56(7.00)	0.983
	비상자금지표2 ^b	금융자산/월평균가계소득	2.04(3.05)	2.68(3.89)	-1.562
	위험대비지표 ^b	월평균보험료/월평균가계소득	0.055(0.044)	0.059(0.035)	-0.865
	부채부담지표1 ^a	총부채/금융자산	11.49(29.78)	9.77(25.24)	0.523
성장성 지표	부채부담지표2 ^a	총부채/총자산	1.93(7.13)	0.45(1.19)	1.433
	저축성향지표 ^b	저축액/가처분소득	0.29(0.25)	0.52(0.20)	-6.148***
	투자성향지표1 ^b	투자자산/총자산	0.33(0.35)	0.45(0.37)	-2.424*
	투자성향지표2	실물자산/총자산	0.36(0.42)	0.33(0.39)	2.197*
	유동성지표 ^b	금융자산/총자산	0.22(0.31)	0.12(0.16)	2.235*

* p<.05, **p<0.01, ***p<.001

^a: 낮을수록 바람직함 ^b: 높을수록 바람직함

재무설계상담 전후 재무비율지표를 비교한 결과 안전성 지표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성장성지표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음이 확인되었다. 저축성향지표는 재무설계상담 이전에는 0.29이었고, 재무설계상담 이후에는 0.52로 0.23 증가하였으며 이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현자 등(2003)에서 제시한 준거기준 저축성향지표는 0.1 이상을 제시하였으며 높을수록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재무설계상담이 저축성향지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투자성향지표의 경우 총자산대비 투자자산의 비율로 측정한 경우와 실물자산으로 측정한 경우 모두 유의미한 증가가 확인되었다.

총자산대비 금융자산의 비율로 측정한 유동성 지표의 경우에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금융자산의 경우 재무설계상담 전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총자산은 증가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시간경과가 지속될 경우 향후 높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V. 결론 및 시사점

5.1 결론

본 연구는 재무전문가의 역할이 강조된 재무설계상담의 효과를 입증하고자 재무설계상담 전후의 주관적 재무복지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재무관리태도, 재무관리능력, 재무만족도의

변화를 측정하였으며 또한 객관적 재무복지수준의 개선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단순재무지표와 재무비율지표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관적 재무복지수준을 측정한 결과 재무설계상담 이전에는 재무관리태도(3.98), 재무관리능력(2.71), 재무만족도(2.7)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순서는 재무설계상담 이후에도 유지되었다. 재무관리태도에 비해 재무관리능력이나 만족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항목에서 재무설계상담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변화가 확인되었다.

둘째, 객관적 재무복지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단순재무지표인 저축과 투자액은 76.6만원에서 124.3만원으로, 연금저축액의 경우 16.9만원에서 24.7만원으로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향상됨이 확인되었다. 변동지출은 130.5만원에서 105.3만원으로, 미과약지출액은 40.1만원에서 5.9만원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유망적 변화가 축적되어 투자자산 항목은 재무설계상담 이전에는 1,738만원에서 이후 2,322만원으로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총자산과 순자산이 증가했다.

셋째, 재무비율지표를 분석한 결과 안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는 통계적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성장성을 측정한 지표들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저축성향지표가 향상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성장성 지표중 유망적 흐름을 측정한 저축성향지표와 저량적 개념인 투자성향지표가 증가하였다는 점이 주목할만하다.

선행연구에서 재무설계상담 여부에 따라 가계의 재무상태를 분석한 결과 재무설계상담이 주관적 재무복지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것이 확인되었다(오종윤·최현자,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일 가계를 대상으로 재무설계상담 전후의 가계의 재무복지수준을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재무설계상담의 유용성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재무관리태도, 재무관리능력, 재무만족도로 측정한 주관적 재무복지와 유량과 저량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여 단순재무지표와 재무비율지표를 활용한 객관적 재무복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재무전문가를 활용한 재무설계상담이 효과적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는 기업차원의 재무교육의 효과가 입증된 기존의 연구들에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한 맥락인 것으로 볼 수 있다.

5.2 제언 및 시사점

재무설계상담 이후 평균 13.8개월이 경과한 이후 주관적 재무복지 수준뿐만 아니라 여러 항목에서 객관적 재무복지수준이 개선된 것이 확인되어 재무설계상담이 주관적 및 객관적 재무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큰 기여를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금융소비자들의 재무관리능력이나 재무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었었는데 향후에는 재무설계상담이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보편화되어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고령화로 인해 은퇴대비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금융소비자교육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은퇴대비에 대한 태도, 관리능력, 만족도의 모든 항목에서 재무설계상

담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로 향상되고 연금저축액도 증가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금융소비자교육과 병행하여 재무설계상담 또한 은퇴대비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은퇴설계에 있어 재무설계상담이 갖는 시사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추후 은퇴설계에 있어 재무설계상담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종업원들의 재무적 웰빙은 기업의 생산성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미국의 실증연구들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재무설계상담은 개인 및 가계의 재정적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뿐만 아니라 종업원들의 재정적 복지수준 향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사업체의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고용주들이 적극적으로 도입을 고려해볼만 하다. 조직의 지불능력 범위 내에서 일방적으로 제공되던 전통적 복리후생제도에서 탈피하여 선택적 및 맞춤형 복리후생이 도입되어 자리를 잡고 있는 시점에서 종업원 복리후생제도적 측면에서 종업원들의 재무설계상담의 중요성이 증대될 것이다.

본 연구는 44명의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수행된 것으로 표본이 제한된 상황에서 수행된 것으로 연구결과를 확대하여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교육 및 상담의 효과를 측정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교육 및 상담의 여부를 기준으로 서로 다른 조사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비교를 실시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일한 표본을 대상으로 재무설계상담 전후의 주관적 및 객관적 차원의 재무복지수준의 변화를 시간이 경과한 후 재측정하여 재무설계상담의 효과성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주관적 복지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활용한 재무관리태도, 재무관리능력, 재무만족도를 측정한 문항들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재무관리태도 항목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가 나타난 만큼 추후의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져 보다 신뢰성 있는 척도를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들의 연령, 학력, 직업, 성별 등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다양화하여 많은 수의 조사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재무설계상담 프로세스를 모두 진행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경과기간에 따른 재무설계상담의 효과를 검증하는 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조사대상자들의 재무지식을 측정하여 재무설계상담이 실질적으로 재무지식수준을 향상시키는가에 대한 규명도 함께 이루어지면 보다 의미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민정·최현자(2007), 가계재무상태 평가지표의 타당성 검토, 소비자학연구, 제18권 3호, pp. 87-110.
- 김병태(2013), 금융소비자의 재무설계상담에 대한 비용지불의사: 재무지식과 위험감수성 향을 중심으로, 금융소비자학회, 2013년도 여름학술대회 발표논문.
- 박광수·양재영·주소현(2010) 「개인재무설계」, 경문사
- 성영애·양세정·이희숙·차경옥·최현자(2006), “소비자재무설계 및 상담 교과과정의 발전적 운영을 위한 소고”, 소비자정책교육연구, 제2권, 제1호, pp. 21-39.
- 성영애(2012), “재무교육 및 재무상담에 대한 소비자요구와 선호분석”, 소비자학연구, 제23권, 제2호 pp. 85-105.
- 손상희(2000), 소비자재무 및 복지연구의 성과와 과제, 소비자학연구, 11권 2호, 103-121.
- 손상희(2004), 미국의 소비자재무상담 서비스 연구, 소비문화연구, 제 7권, 제 4호, pp. 101-127.
- 양세정·정지영(2009), 국내FP(Financial Planner)를 대상으로 한 가계재무지표값 조사, 한국FP학회 추계학술대회발표논문.
- 윤정혜·김경자·성영애·양세정·손상희·이희숙·최현자(2001), “소비자재무설계 , 상담 ,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방향”, 소비자학연구, 제12권, 제3호, pp. 89-108.
- 이기춘·박명희·윤정혜·손상희·성영애(2009), 「소비자재무설계」, 학현사
- 이희숙·성영애·양세정·최현자(2002), “재무비용을 이용한 가계재무상태 평가”, 가정관리학회 제 32차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pp. 123-133.
- 오종윤·최현자(2010) "재무설계를 통한 재무복지 향상에 관한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제3권, 제2호, pp. 1-18.
- 오종윤(2011) "재무설계상담이 가계재무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종윤·최현자(2012), "재무설계상담이 가계재무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제4권 제1호, pp. 1-32.
- 안창희·정순희(2006), “개인재무교육이 재무행동 및 객관적 경제복지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연구, 제37권, 제7호, pp. 439-476.
- 조동필·양세정·배미경(2008), “도시가계의 재무지식 및 재무관리가 객관적 재무건전성과 주관적 재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제 16권 2호, pp.333-348.
- 조혜진·최현자·김민정(2013), 재무설계비용 지불의사와 지불금액 결정요인, 소비자학연구, 제 24권, 제1호, pp.71-98.
- 주소현(2008), 중업원 재무교육과 은퇴설계, 소비자학연구, 제19권, 제1호, pp. 73-91

- 주소현·조영란(2012), “소비자의 재무상담 활용현황 및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소비문화 연구, 제15권, 제1호, pp. 1-20.
- 차경옥·박미연·김연주(2008), “20,30대 임금근로자의 은퇴재무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6권 제1호, pp. 149-163.
- 최현자·이희숙·양세정·성영애(2003), “재무비율을 이용한 가계재무상태 평가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제 14권 1호, pp. 99-121.
- 최현자·김민정A·김민정B(2008) "재무설계의 유용성: 은퇴에의 적용," Financial Planning Review, 제 1권, 제 1호, pp. 109-130.
- 한국FPSB(2010), 「CFP 파이낸셜 플래닝 개론」, 한국FPSB.
- Collins, J. Michael (2007), Exploring the Design of Financial Counseling for Mortgage Borrowers in Default,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Volume 28, Issue 2, 207-226.
- Devaney, S.(1994). "Usefulness of Financial Ratio as Predictors of Household Insolvency",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5, pp. 5-23.
- Dolvin, Stven D. & William K. Templeton (2006), "Financial Education and Asset Allocation", *Financial Services Review*, 15, pp. 133-149.
- Edmiston, Kelly D & Mary C. Gillett-Fisher (2006), "Financial Education at the workplace: Evidence from a survey of Federal Reserve Bank Employees. *Federal Reserve Bank of Kansas City Community Affairs*, Working Paper 06-02.
- Elder, H. W. & Rudolph, P. M. (1999), "Does retirement planning affect the level of retirement satisfaction?", *Financial Services Review*, 8(2), pp. 117-128
- Garman E. T., Leech E. Irene & Grable, E. John (1996), "The Negative Impact of Employee Poor Personal Financial Behaviors On Employer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7, pp. 157-168.
- Hira, K. T. & Cazilla Loibl (2005), "Understanding the Impact of Employer provided financial Education on Workplace Satisfaction", *Journal of Consumer Affairs*, 39(1), 173-194.
- Ian Hathaway & Sameer Khatiwada (2008), "Do financial Education Programs Work?", *Federal Reserve Bank of Cleveland*, Working Paper 08-03.
- Joo, So-Hyun (1998), "Personal Financial Wellness and Worker Job Productivity", PhD dissertation,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 Joo, So-Hyun (2000), "Improving Employee Productivity: The Role of Financial Counseling and Education", *Journal of Employment Counseling*, 37(1)
- Joo So-Hyun & John, E. Grable (2005), "Employee education and the Likelihood

- of Having a Retirement Saving Program",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 16(1), pp. 37-49.
- Kim, Jinhee (1999), "Financial Satisfaction, Personal Finance-Work Conflict, And Work Outcomes" Proceedings of Association for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Education.
- Kim, Jinhee (2000), "The Effects of Workplace Financial Education on Personal Finances and Work Outcomes", PhD dissertation,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 Kim, Jinhee, Garman E. Thomas & Sorhaindo, Benoit (2003), "Relationships Among Credit Counseling Clients' Financial Wellbeing, Financial Behaviors, Financial Stressor Events, and Health,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14(2), pp. 75-87.
- Lusardi Annamaria & Olivia S Mitchell (2006), "Baby Boomer Retirement Security: The Role of Planning, Financial Literacy and Housing Wealth", University of Michigan Retirement Research Center Working Paper WP2006-114.
- Lusardi, Annamaria & Olivia S Mitchell (2011), "Financial Literacy and Planning: Implication for Retirement Wellbeing", NBER Working Paper No. 17078 Issued in May 2011.
- Mason, Jerry & Bud Poduska (1986), "Financial Planner or Financial Counselor: The Differences Are Significant",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20(1), pp. 142-147.
- Prather, C. G.(1990), "The Ratio Analysis Technique Applied to Personal Finance Statements : Development of Household Norm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1, pp. 53-70.
- Williams, L., Flora, Haldeman Virginia & Cramer Sheran (1996), Effects of Financial Concerns Upon Workplace and Behavior and Productivity,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7, pp. 147-156.